



# 포커스

FOCUS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 시장 노크

## 캐릭터시장의 영파워 이미지시장 석권 노린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오는 8월 국제인쇄산업전(KIPES)때 첫 작품 출시를 목표로 사진 및 캐릭터개발에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이미지 제공업체 '이미지크루'의 신세대 작가들. 회사의 대표인 신지영(30)씨를 비롯해 전원이 30을 넘지 않는 건강함을 자랑한다. 건강함만이 이들의 자랑은 아니다.

사진분야를 맡고 있는 촬영팀장은 홍익대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한 전도 유명한 기대주이며, 캐릭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 개발팀장도 6년 경력에 일본 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 여기에 대학 졸업 후 꾸준하게 편집 디자인 일을 해온 신지영대표는 7년이라는 짧지 않은 디자인 경력을 지닌 숙명여대를 졸업한 미모의 사업가. 젊음의 패기가 넘치는 이들이 이미지 제공 시장에 뛰어들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적 이미지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 단 하나이다.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로 승부를 걸겠다는 발상의 근원은 결코 한국적이지 못한 국내 이미지 제공업체들 때문이다.

신지영대표는 "4~5년새 30여개 업체가 나름대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겠다고 생겨났지만, 한국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업체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에 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이미지를 수출하는 지식 강대국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미지크루'의 같은 발상은 현장에서 쌓은 나름대로의 노하우 때문에 가능했다.

촬영팀장은 "외국의 이미지를싼 가격에 묶어서 판매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한국의 선과 미를 강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담기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인적 구성을 마쳤으며, 최상의 이미지를 담기 위한 최고의 장비를 구축한 만큼 사진가 개인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이미지들은 최소 해상도 300dpi가 기준이다. 높은 해상도를 위해 페이지 원(Phase One)을 비롯해 촬영 장비에만 7천여 만원이 투자됐다. 5000여 종을 목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촬영에 여념이 없는 상태이다.

이미 수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 받은 바 있는 캐릭터 개발팀장의 각오도

남다르다. 캐릭터팀장은 “이미지크루가 후발업체로 뛰어난 데는 국내 시장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개수도 늘고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대다수의 제품들이 기획단계에서 이미지의 활용범위가 충분히 기획되지 않은 관계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비슷한 한 컷의 이미지 때문에 팔리는 제품이 아닌, 최상급의 질과 소비자의 욕구에 정확히 부합할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제작돼 있는 클럽아트를 비롯해 자체적인 캐릭터 개발에 여념이 없으며, 프리랜서로 합류하는 이들에겐 회사가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해 주고 여기에 부합하는 이미지만 선택적으로 받고 있다.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뚜렷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이들이 뭉친 회사답게 소비자들에게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가 설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

는 전략은 웹사이트를 통한 개별 판매 전략이다. 마음에 드는 단 하나의 이미지를 위해 ‘ולם겨져 먹기’ 식으로 이미지 전체 묶음을 구입해야 하는 기존업체들의 부당함을 고치기 위해서다.

신지영대표는 “기획사 출신인 우리들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미지크루는 단순히 멋있기만 하고 쓸모가 없는 이미지 CD보다는 기획사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구하기 힘든 실용적인 이미지 CD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 회사의 운명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목표는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시장을 겨누고 있다. 외국의 이미지 회사가 자국의 풍경을 담아서 우리나라에 이국적인 모습을 수출하는 것처럼 동양의 이국적인 이미지를 필요로 할 외국의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8월 인쇄산업전에서 드러낼 세계를 겨냥할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담아낼 이미지크루 젊은 작가들의 솜씨 자랑을 기대해 보자. ↻



◆ 사진 및 캐릭터개발에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이미지 제공업체 ‘이미지크루’의 신세대 작가들. 이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 진출할 아무진 꿈을 키우고 있다. (앞줄 왼쪽이 신지영 대표)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